

사람과 세월을 잇다

백마역과 경의선

‘첫눈 내리던 지난 겨울날 우린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어서 흔들거리는 경의선에 몸을 싣고서 백마라는 작은 마을에 내렸지...’

밴드 동물원이 1993년 발표한 곡 <백마에서>의 노랫말입니다. 1980~1990년대 젊은이들에게 백마는 낭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백마역은 강촌역과 함께 대학생 MT 장소의 쌍두마차로 이름을 날렸지요. 신촌역 앞은 백마역으로 향하는 학생들로 북적였고, 역 앞 골목을 따라 늘어선 카페촌은 청춘들이 낭만을 논하는 단골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생겨나고 서울지하철 3호선이 일산까지 연장되면서 승객들의 발길은 백마역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마두역으로 향했습니다. 상권 좋던 애니골까지 풍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백마역은 점점 추억 속으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랬던 백마역이 활기를 되찾은 건 2009년 7월 1일 경의선 복선 전철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부터입니다. 2012년 12월에는 경의선이 공덕역까지 연장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의선이 지금의 경의중앙선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양평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백마역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꾸준히 타고 내리는 역이 되었습니다. 옛 시절의 명성은 추억으로 남겨졌지만, 지금도 백마역은 역을 이용하는 어르신, 출퇴근하는 직장인, 통학하는 학생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양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고양시가 109만 특례시로 피어나기까지는 귀중한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소식>은 특례시 고양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진 자료를 기다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고 소정의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gysosik@naver.com 참여방법 사진, 사진 설명, 이름,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2003년 촬영된 경의선 철도역 열차



GOYANG CITY MAGAZINE

2022 JULY



고양소식 오디오북



고양소식 전자책

발행인 고양시장 이동환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주무관 윤정로
편집위원 김민정, 김은정, 노정민, 오문석, 윤재진,
이경현, 이암중, 임태성, 정동일,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홈페이지 gy1pick.kr
이메일 gysosik@naver.com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발행일 2022년 7월 1일

- 04 포토리뷰
고양특례시 주요행사 다시보기
- 06 슬기로운 고양생활
고양 탄소지움카드
- 10 고양 꽃피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2 고양툰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 안내
- 14 은빛바람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18 피어나라 청춘아
이루다학교
- 20 고양여성공감
고양시 여성회관
- 22 라이브&라이프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
- 24 해피투게더
2022 고양시 중장년일자리박람회 다시보기
- 26 길따라 이야기따라
한강방문자센터, 신평예술창작소
- 28 고양 핫스팟
고양시 목공체험소
- 30 떠나볼 고양
도심 속 빛나는 하루 지금 떠나요, 캠핑!
- 32 스포츠 고양
이 여름, 운동이 즐겁다
- 36 플레이 온
손흥민의 'EPL 득점왕'
- 38 건강돌보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우리 아이, 소아 뇌전증
- 40 세무톡톡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배제, 세금 얼마나 절약될까
- 42 추천IN고양
한국영화,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 44 문화공감
7월의 주요 문화행사 소식
- 46 고양계시판
시정, 유관기관, 의정 소식
- 49 독자문예마당
굳은살
- 50 독자소리함
독자 후기 및 고양 사랑방